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24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95:1-7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9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0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회개하는 자에게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이사야 49:14-21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봉 헌(offering) 2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455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11월 셋째 주일(21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3. 교우소식
 - 지난 주 새로 오신 분 : 김영철성도님
 - 출타 : 이진국 • 김성애성도님 애틀란타 친지방문, 김희상권사님 사업차 애틀란타 방문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이사야 49:14-21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혈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쳐하게 하라 하리니 21 그 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와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14-17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면 어떤 때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어떤 결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18-21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되었습니까?

■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을 때, 그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약탈과 파괴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해지고 그분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임입니다. 그분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기만 하면, 예기치 못한 인생의 반전이 기적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